



## 미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

미국 상무부는 5월 2일(현지시간) 한국산 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 기업의 경우 알멕 0%, 신양 2.42%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하였고, 상무부 조사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에는 43.56%를 산정하였다.

\* 한국, 중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대만, 태국, 터키, UAE, 베트남

\*\* 주요국 덤핑마진: (중국)4.91%~376.85%, (멕시코)8.18~82.03%, (콜롬비아) 8.85~34.47%, (인도네시아) 5.65~112.21% 등

금번 예비판정에서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덤핑마진이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산정되어 알루미늄 압출재 업계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알루미늄 압출재를 조립·가공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담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당초 제조자가 주장한 덤핑마진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며(66.4%→2.42%), 구체적 영향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와 면밀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동 반덤핑조사 개시 직후부터 관련 업계와 간담회 및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상무부장관에게 서한을 발송(2024.3.5.)하고 수차례 고위급 면담을 통해 미측에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정부는 동 조사의 최종판정이 나올 때까지 업계와 하나의 팀을 이루어 우리 수출 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 대응할 계획이다.

|               |                    |     |     |                    |
|---------------|--------------------|-----|-----|--------------------|
| 담당 부서<br><총괄> | 다자통상법무관<br>통상법무기획과 | 책임자 | 과 장 | 김호철 (044-203-5940) |
|               |                    | 담당자 | 사무관 | 정지선 (044-203-5941) |
|               |                    | 담당자 | 사무관 | 양서진 (044-203-5945) |



## 1. 개요

- (조사개시) '23.10월, 美 알루미늄 업계의 청원에 따라 美 상무부는 한국산 등 15개국\* 대상 반덤핑 조사개시(23.10.24)
  - \* 한국, 중국,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인도, 인니, 이탈리아, 말련, 멕시코, 대만, 태국, 터키, UAE, 베트남
  - 단, 도미니카 공화국은 대미 수출물량 미비로 산업피해 예비판정 단계에서 제외
- (청원인) US Aluminum Extruders Coalition and the USW\*
  - \* The United Steelworkers Union
- (대상품목) 알루미늄 압출재 및 이를 조립·가공한 부품/완제품\*
  - \* 알루미늄 압출재 품목 등 HS코드 10단위 약 130여개 품목 포함
- (예비판정) '23.5.2, 美 상무부 한국산 대상 0~43.56% 부과
  - \* 알멕 0%, 신양 2.42%, 상무부조사 미응답 43.6%
- (향후일정) 상무부 최종판정(9월) → ITC, 산업피해 최종판정(11월)

## 2. 정부 대응경과

- 통상교섭본부장 명의 美 상무부 장관 앞 서한 발송('24.3.5)
- 기업간담회 : 통상교섭실장 주재 민관 대책회의('24.4.29), 과장급 기업 간담회('23.11월, '24.2월) 등
- 고위급 접촉 : 무역위 상임위원장 방미계기 상무부 부차관보 면담('24.2.26), 통상차관보 방미계기 USTR/상무부 담당 차관보 면담(4.17)